



대형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

정부, 17일 마트·영화관 등 6종시설 대상 해제 조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계속 적용
“이번 조정은 한시적”… 도, 정부 방침따라 조정 나서

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예정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조정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방역패스는 철회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내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시식·시음 등 취식과 호객행위를 제한한다.

정부는 또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밀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는

의 공연은 합성·구조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날 해제된 시설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2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해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로,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제주도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와 관련된 배너가 철거되고 있다.

업체관계자와 술 마신 고위공무원 경찰 “김영란법 불성립”… 불송치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A국장장과 B과장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위공직자들과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금액도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술자리가 특례를

위한 연장선이 아닌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에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지난해 말 A국장장과 B과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으며, 3주 뒤 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사실상 해당 술자리가 특례를 위한 접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제주도청 모 부서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국장장과 B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도, 물가안정대책반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물가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농·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협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해 설 연휴 이전에 축산물은 최대 2배, 과일·채소 등 농산물은 1.4배까지 공급량을 확대한다.

또 수산물물은 옥돔·갈치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9명 확진

17일 오후 5시 기준 2명 코로나 추가 감염

3차 백신접종률 43%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자릿대로 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까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99명이며 이달 들어선 238명이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66명이 확진됐으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9.43명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지난 10일 15명, 11일 5명, 12일 7명, 13일 6명, 14일 13명, 15일 8명, 16일 12명 등 한자릿수 또는 두자릿수 초반 대 확산세를 유지해 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타지역 관련 확진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명 등이다. 집단감염 사례 관련 확진자는 없다.

제주지역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84.1%, 3차 접종률은 43.3%를 나타내고 있다. 강다혜기자

실종된 5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지난 5일 함께 집 나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던 50대 부부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의 한 숲길에서 숨져 있는 부부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도 소재 집을 나선 뒤 종적을 감췄으며, 가족들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14일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교래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하다 숨져 있는 이들 부부를 발견했으며 현재 사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결혼정보회사와 갈등

60대 재혼요구하며 분신

재혼 앞선 문제로 결혼정보 회사와 갈등을 겪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도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A(64)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

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뒤 최근 이혼을 했으며 회사 측에 재혼 앞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아내·장인 폭행 40대 무죄

아내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쯤 아내 B씨와 장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몰래 수천만원을 인출해 집 안에 숨겨뒀던 현금을 발견,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파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치(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